

## 資 料

### 韓國 先史・原史遺跡出土 漁具例 (3)

崔 夢 龍

#### (9)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欣岩里出土例

驪州 占東面 欣岩理(俗稱 혼바위) 部落 先史遺蹟址는 1962年 金元龍先生에 依해 “櫛文土器文化와 接觸을 가지고 있던 漢江畔의 石器時代末期 無文土器遺蹟의 하나”<sup>1)</sup>로 처음 學界에 紹介되었으며 其後 1972年과 73年에 걸쳐 서울大學校 文理大 考古人類學科와 同附屬博物館이 合同으로 發掘을 實施하여 5個의 竪穴住居址를 確認하고 있다<sup>2)</sup>.

그리고 여기 遺蹟址에서 나타난 住居址는 비록 重複되어 相當히 복잡한 樣相을 띄고 있지만 時代의 先後는 認定된다 할지라도 出土遺物의 內容으로 보아 한 文化期間에 存續했었으며 그 時間差가 그리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文化內容은 半圓形石刀가 多量으로 出土하는 點으로 보아 基本은 農耕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으며 또 石鏃, 漁網錘, 紡錘車(spindle-whorl) 等の 存在로 보아 狩獵이나 漁撈로도 生活의 一方便을 삼고 있었고 또 물레를 使用해 옷감을 製造해 낼 줄 아는 相當히 發達된 文化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 遺蹟址가 屬하는 時期는 無文土器, 紅陶의 高杯, 血溝가 있는 磨製石劍片으로 大概 B.C. 2世紀頃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取扱하고자 하는 漁具例는 2次에 걸쳐 實施한 發掘에서 13點, 表面採集에서 한 點의 都合 14點을 얻었는데 모두 土製品이고 石製品은 단 한點도 出土하지 않은 것이 特異하다. (圖 1, 2 參照)

여기 出土 漁網錘는 굵은 砂粒이 섞인 典型的인 無文土器의 胎土質과 類似한 것으로 미리 본을 떠 長軸과 平行되게 구멍을 뚫은 다음 구어 만든 ‘有孔土錘’가 基本이 됨을 알 수 있으며 縱斷面은 거의 圓形이며 模斷面은 橢圓形 圓筒形이 主가 된다.

길이는 大小 여러가지가 있으나 大略적인 것은 3.5cm에서 긴 것은 5.5cm 以內에 屬하며 縱斷面 直徑은 1.5~2.2cm이다. 무게는 8g에서 12g 사이이다. (圖 1, 圖 2의 1~10까지)

胎土는 前記 無文土器의 그것과 같으며 또 이러한 有孔土錘가 竪穴住居址 바닥에서 無文土器와 共伴하고 있는 事實은 매우 重要하다.

即 有孔土錘는 無文土器時代에 屬하며 그 實年代도 B.C. 2世紀 前後가 될 듯하며 그러한 系統은 胎

1) 金元龍 『驪州 欣岩里 打製石器遺蹟』 考古美術 第3卷 2, 3合併號(1962. 2. 3) p. 86

2) 金元龍, 任孝宰, 崔夢龍 『驪州 欣岩里 先史遺蹟發掘調査』 서울大 考古人類學科叢刊 第四冊 收收(未刊)

土質만 바뀌어 三國時代初까지 이어져 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欣岩里遺蹟에서는 前者 有孔土錘와 달리 圓球形土錘(圖 2의 13), 有溝橢圓形土錘(圖 2의 11) 圓形土錘(圖 2의 12)의 3例가 보이는데 胎土質은 前者들과 같은 無文土器의 그것이나 形態의 으로는 前者들과 判異하다.

또 圖 2의 12例인 圓形土錘는 一見 紡錘車가 아닌가 疑心되지만 分明히 말해서 여기 欣岩里遺蹟에서는 出土와 所用目的이 뚜렷한 紡錘車가 出土되고 있어 注目된다.

사실 우리나라 古代로 부터 傳來되어 오는 「綿絲紡車」인 물레(Spinning Machine)는 솜이나 털을 자아 실을 만드는 기계<sup>3)</sup>이며 紡錘車는 그 물레의 一部屬으로 가락바퀴라 일컬어지고 있다.

即 가락(紡錘)은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솜이나 고치에서 나오는 실을 감는 두끝이 黽족한 쇠꼬챙이이며 가락바퀴(spindle whorl, 紡錘車)는 물레에 딸린 바퀴로 이것이 돌아감에 따라 가락이 돌면서 실을 감게 되는 그것이며 實際魏略에서 「馬韓…其人土着農耕 知作綿布」하던 그 當時人들에게 充分히 使用되었던 必須品이었던 것은 分明한 事實이었을 것이다.

다시 本論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나온 3點의 異形土製品들은 分明히 紡錘車가 아니고 漁具의 一種으로 보아야될 것 같다.

即 有溝橢圓形土錘라던가 圓形土錘는 章을 달리해서 紹介하겠지만 全南 光州市 牛峙洞 龍江部落에서도 나오고 있어 文化가 基本的으로 一脈相通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有溝橢圓形土錘(圖 2의 11)는 斷面은 거의 8字形이며 長軸과 平行으로 난 홈의 한가운데 공(孔)이 있어 이것은 줄에 매달때 좀더 附着을 強하게 하고져 한 것으로서 橫斷面 8字形土錘에 有孔이 加味되어 나타난 形式으로 解釋할 수 있겠다.

長 2.9cm 幅 2.3cm 孔의 直徑 0.3cm이다. 全體形은 斷面 橢圓形.

다음 圓形土錘(圖 2의 12)는 直徑 約 3.3cm 斷面 最大두께 1cm이며 斷面은 橢圓形을 보이고 있다. 球形土錘는 直徑 2.2cm 斷面 最大厚 2.1cm이며 한가운데 直徑 0.4cm 程度의 孔이 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多樣한 土製漁具例가 出土하는 것은 갑자기 理解하기 곤란하나 于先 漁撈上의 技術이 單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으며 一例로 新石器時代以來로 景響을 받아오고 있는 시베리아 地方의 先史漁撈文化를 보면 漁撈의 技術이 多種·多樣함을 그들이 잡아 내고 있는 가자이(Turbot) 메기(Catfish) 철갑상어(Sturgeon)등의 漁皮를 여러가지 表面處理하여 만든 衣服을 使用할 程度임을 보아도<sup>4)</sup> 쉽게 짐작이 된다.

그리고 여기 欣岩里遺蹟址와는 關聯은 없지만 圖 2의 14는 近處 江岸이 丘陵에서 表面採集한 것으로 形式은 斷面 8字形土錘이며 長橢圓形의 兩側에 縱溝를 깊이 파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縱溝에 繩文이 깊이 새겨져 있다. 色調는 暗褐色이며 胎土는 精選된 硬質의 것으로 原史時代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게 8g.

3) 김광연 『한국의 농기구』 1965 95 물레편

4) A.P. Okladnikov "Ancient population of siberia and its cultures"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and Ethnology, Harvard Univ. vol.No.1 1959 p.21

(10) 全南 光州市 牛峙洞 龍江部落出土 漁具例

光州市 牛峙洞 龍江部落 뒷산 先史遺蹟은 最近 筆者에 依해 發見된 것으로서 그곳에서는 多量의 無文土器片, 牛角形把牛, 石鑿, 扁平無徑三角形石鏃, 砥石, 製紡錘車片 等과 함께 4 點의 土製漁具例가 出土되었다.

그런데 여기 遺蹟은 前記 紹介한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欣岩里 遺蹟과 똑같은 性格의 遺蹟址이나 牛角形把牛 等の 存在로 보아 時代는 若干늦어진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 文化的性格은 곧 實施하게 될 發掘에 依해 仔細히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4 點의 漁具例인데 有孔土錘는 전혀 보이지 않고 3 點의 有溝橢圓形土錘와 한점의 球形土錘만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 有溝橢圓形土錘는 斷面 8 字形土錘에 구멍을 뚫어 놓은것은 前記한 바와 같은形式인데 이런 斷面 8 字形土錘는 大概 無文土器와 關聯을 맺고 있는 土錘로서 有孔土錘와는 다른 別個의 樣式으로 그 傳統을 現在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資料로 보아 有孔土錘보다 더 오랜 時間 使用된 것 같다.

그러나 두 系統의 土錘中 어느 것이 그 始源이 오래되었는지는 確實치 않으나 漢沙里等地的 出土例로 보아 아마도 斷面 8 字形土錘가 더 오래인 것 같다.

櫛文土器→無文土器時代→原史時代→歷史時代→現在

兩缺形石錘.....→

斷面 8 字形土錘.....→

.....  
.....→有溝橢圓形土錘.....→

有孔土錘.....→

即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系統을 보면 兩缺形石錘는 無文土器와 生命을 같이 하고 있으나 斷面 8 字形土錘나 有孔土錘는 長時間 使用이 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龍江部落出土例는 全部四點으로 2 例는 有溝橢圓形土錘로 色調는 黃褐色, 胎土는 굵은 砂粒이 섞인 無文土器胎土質이다.

長은 各各 3cm, 3.1cm 斷面厚 0.8cm 同이며 有溝가운데 난 孔徑은 各各 0.5cm, 0.3cm이다. (圖 3의 1, 2 및 寫眞 2)

그리고 圖 3의 3 例는 前者와 같은 系統으로 有溝는 있으나 가운데 孔이 보이지 않는다. 長 3.1cm 斷面厚 0.6cm이다. 大概 무게는 欣岩里例와 마찬가지로 12~14g 內外이다.

圖 3의 4는 有球土錘로서 直徑 2cm 孔徑 0.4cm이다.

그러나 이러한 球形土錘는 現在로서 무어라 말할 수 없고 좀더 資料의 增加를 기다려 올바른 說明을 加하는 것이 나을듯 하다.

(11) 全南 和順郡 綾州 出土 漁具例

長 9.2cm 幅 4.4cm 무게 197g의 大形漁網錘로서 斷面은 典型的인 8 字形으로 兩側에 長軸과 平行되게 깊은 橫溝가 나 있다. (寫眞 3及 圖 4)

胎土質은 약간 퇴색한 靑磁빛나는 陶製로서 高麗時代의 漁具例이다.

이 漁網錘는 典型的인 斷面八字形의 傳統이 끈질기게 이어져내려오는 좋은 實例이며 또 재미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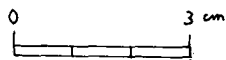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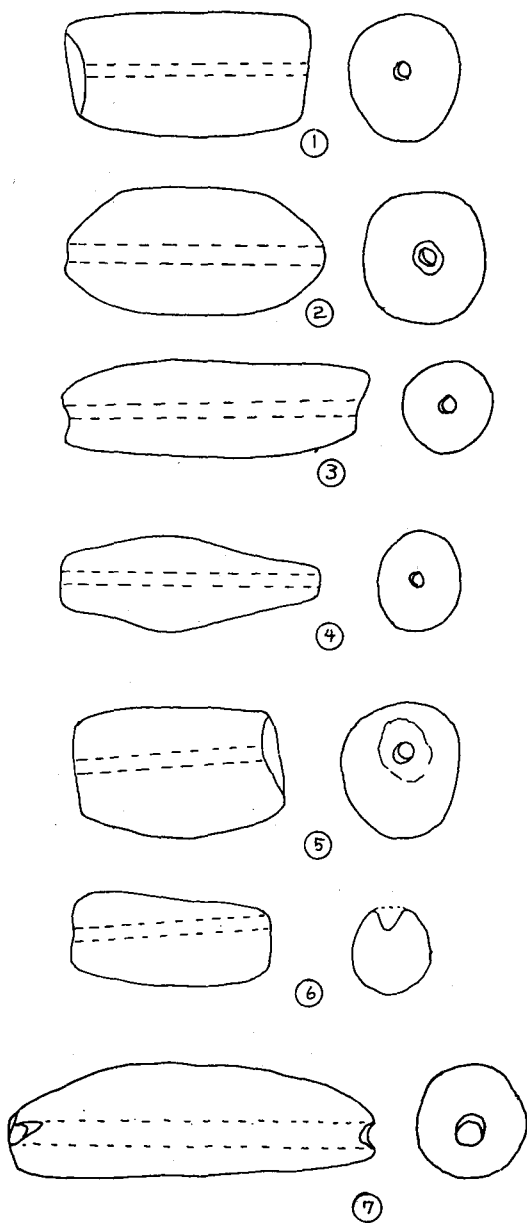


圖 1. 驪州欣岩里出土漁具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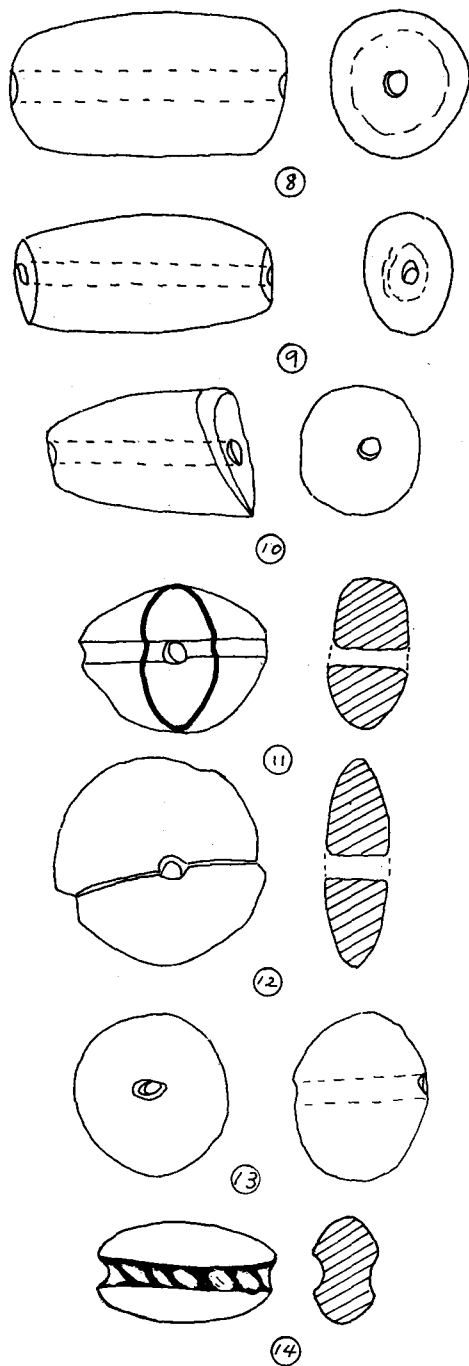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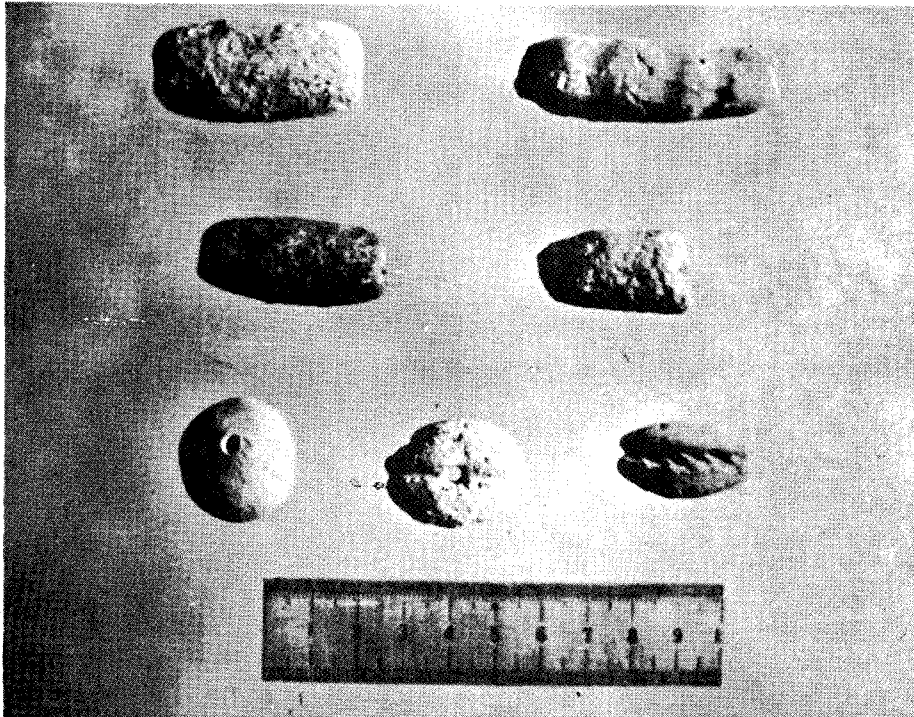


圖 2. 驪欣岩里出土漁具例

것은 全大 博物館所藏品 No. 3443으로 그 臺帳에서 和順綾州의 一古墳出土品이라고 名記되어 있는 데 만약 이것이 副葬品이라면 被葬者가 그 當時 漁撈와 깊은 關聯을 맺고 있는 身分임에 틀림이 없겠으며 더 나아가 副葬品에 漁具가 使用되는 좋은 資料를 提供해 준다 하겠다. (1973.6.9)



寫眞 1. 欣岩里出土 漁具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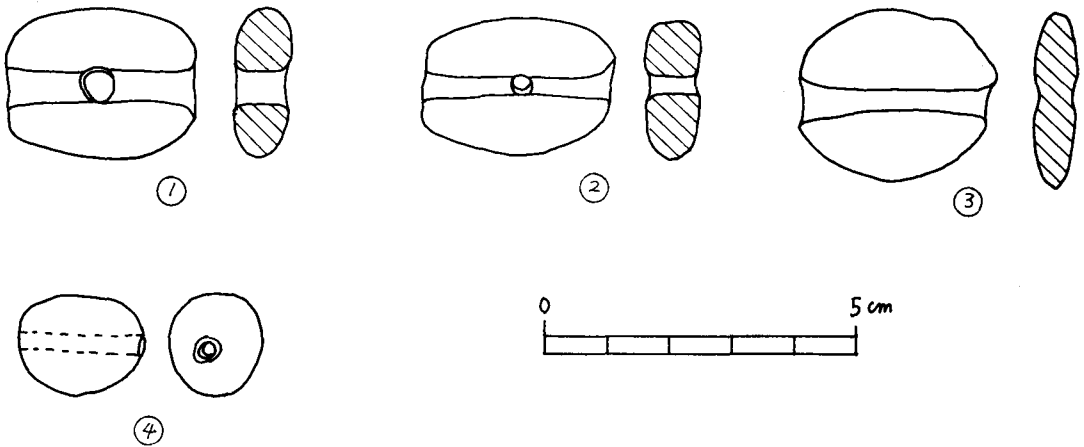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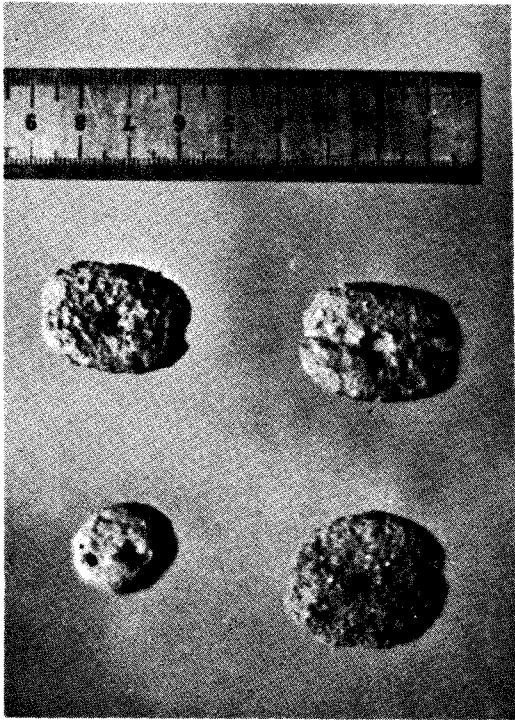


圖 3. 光州市 牛峙洞 龍江部落 出土 漁具例



寫真 2. 光州市 牛峙洞 龍江部落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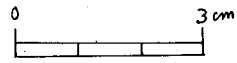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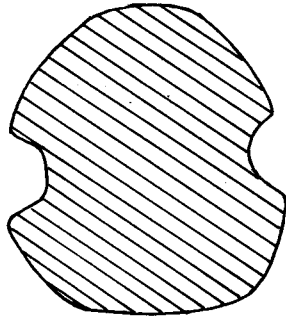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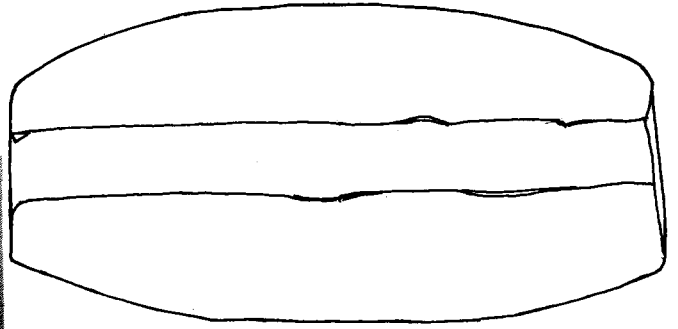


圖 4. 和順陵州出土漁具例